

國民學校 餘裕教室 活用 對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Utilization Policy of Empty Classrooms in Elementary School

朴 永 菽*
Park, Young Sook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empty classrooms in elementary school. The empty classroom in this study means the classroom that is not used now since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s, but can be usable for other needs in future.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through this survey; 1) about forty percent of classrooms are empty classrooms, 2) the ratio of empty classrooms is higher in urban area than rural area, 3) the smaller the size of classroom is, the higher the ratio is, and 4) 56.5% of the schools have one to three empty classrooms and 30.0% have four to six empty classrooms.

I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1) the reutilization plan of empty classrooms be established according to particular situation of each school, 2) the government develop the guidelines for reutiliz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renewal, 3) the reutilization plan be established from the view point of the quality improvement of schooling, and 4) the enlargement and rearrangement of learning space be considered when reutilization is planned.

I. 서 론

1. 문제 제기

학교시설은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시설을 확충

하는 한편 질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학교시설의 질적인 개선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의 개선 동향을 살펴 보면, 구미권에서는 적어도 1970년 이후부터 개별학습과

* 正會員, 韓國教育開發院 先任研究員.

本 研究는 '94年 韓國教育開發院 學術研究 用役費 支援에 의한 研究임.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학교 건물의 증 개축과 같은 개선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주목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학교시설의 인텔리전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것에 비하면 이미 20여년 전에 선진 외국은 질적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선진 외국이 시설 분야에서 질적 향상을 위하여 부딪혔던 많은 과제 중에서도 특별히 부각되는 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교실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학생수 감소 추세는 1970년대 이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선진국에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교실을 계기로 부족했던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고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여유교실 발생과 관련하여 개별화 개성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립 국민학교와 중학교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학습 형태를 실시할 수 있게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학생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학교의 경우 1980~1993년 동안 약 23.4% 정도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는 동기간 동안 2.5% 정도 감소하였다. 고등학교는 역으로 21.9%나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고등학교 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경우는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의 도입과 열린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여유교실을

선진국의 선경험을 토대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시급하다고 본다. 농 어촌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 폐합을 추진 중에 있고, 도시 지역에서도 여유교실이 생겨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폐교 조치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의 문제 인식은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이 선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여유교실이 이미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서 비롯하였다. 이미 여유교실이 발생한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대개는 특별교실로 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의 열린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여유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목적 공간(open space)으로 활용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법적 및 지원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열린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일반 다른 학교에서도 여유교실을 특별교실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경영 제반에 관련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여유교실의 발생과 그 대책 방안은 곧 정책 현안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여유교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교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탐색해 봄은 시기적으로 의미있다고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일본에서 앞서 경험한 여유교실의 활용 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장으로부터의 여유교실 활용에 관한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여유교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화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유교실의 개념, 결정 요인, 활용 유형 등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여유교실의 발생 현황과 활용에 대한 요구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여유교실의 활용과 관련한 일본의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추출한다. 넷째, 여유교실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조사 연구를 병행하였다. 여유교실의 개념 정립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그리고 일본의 활용 사례에 관하여는 다양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여유교실의 발생 현황과 활용에 대한 요구는 전체 국민학교의 10%에 해당하는 590개교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에 의한 질문지 조사를 1995년 9월중(9.11~9.30)에 실시하였다. 그밖에 서울 대전지역의 몇개 학교 방문과 출장 면담을 통하여 여유교실 활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역별 학교 분포 비율, 학급 규모 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10%씩 선정되었으며, 회수율은 53.7%로 317개교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 결과 분석은 SPSS 프로그램에 의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지역, 학급 규모, 학교건축연도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II. 여유교실 관련 문헌 분석

1. 여유교실의 개념 및 발생 유형

가. 여유교실의 개념

여유교실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 '유휴교실'과 '잉여교실', '빈교실' 등이 있다. '유휴교실'에서의 유휴라는 용어의 어의를 살펴 보면, 운행이나 기능 발휘를 정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유교실은 넉넉하고 남음이 있다

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활용하지 않고 비어져 있는 교실이란 의미에 적합한 용어로는 여유교실보다는 유휴교실이 더 적절해 보일수 있다. 이는 보통교실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지역 사정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유교실로 용어를 사용함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유교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난뒤에 남는 교실로 이해되거나 미래의 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남겨둔 교실로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여유교실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일본에서의 선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는 연구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가능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시켜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하고 보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본 문교시설협회에서 여유교실에 관하여 정의한 바에 의하면, 여유교실이란 '원래 학급 혹은 보통교실로서 설치된 교실이 학생수의 감소 등에 따라 학급 혹은 보통교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고²⁾, 동경 杉並區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급수가 보통교실 보유수보다 적기 때문에 학급 이용이 보이지 않는 보통교실수'라고 규정한 바 있으며³⁾, 여유교실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심도있게 연구한 바 있는 加藤幸次 松田早苗는 여유교실과 유사한 개념으로 '빈교실(空き教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빈교실'이란 단순히 '비어있는 교실만이 아니라 향후 전용이 고려되고 있는 교실'로 개념화하고 있다³⁾. 이러한 여유교실에 관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유교실을 '보통교실로서 현재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비어 있으나 향후 어떠한 목적으로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교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나. 여유교실의 발생 유형

여유교실은 발생 성격에 따라 일시적 여유교실

과 항구적 여유교실로 구분된다. 이에 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시적 여유교실

일시적 여유교실이란 학급수의 증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향후 보통교실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교실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일시적 여유교실을 활용하는 보편적인 방식은 보통교실로 다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통교실로서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2) 항구적 여유교실

이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과대 규모 학교의 분리 등으로 인하여 생겨난 교실로서 보통교실로서 재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유교실의 활용을 위하여는, 활용 목적에 맞도록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갖추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벽이나 칸막이의 철거까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나 건축공학적 방법 등에 관한 제반 검토가 요구된다⁴⁾.

2. 여유교실의 결정 요인

보통교실은 배치에 따라 일조나 채광이 불충분하는 등 환경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여유교실 발생시 어느 교실을 활용하지 않고 비워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작용하게 된다. 여유교실을 결정하는 데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은 대체로 환경적 요인과 교실 배치적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통풍, 채광, 일조(더위, 추위)와 같은 조건이 해당되고, 배치적 요인은 인접 교실과의 관계가 해당된다.

이에 관하여 류 호섭은 여유교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힘이 여유교실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선행될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결정 요인들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통풍과 같은 조건에 있어서는

복도가 가운데로 되어 있는 경우, 편복도에 비해 통풍이 나빠지게 될 경향이 있어 여유교실로 남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채광에 있어서는 채광 측면에 다른 건물동이 면하고 있을 경우 여유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사의 모퉁이에 있어 통풍이랑 일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여유교실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배치적인 조건에서 여유교실은 학급교실에 비해 1층이나 교사의 동 끝부분에 위치되는 경향이 있고, 3층, 4층과 같이 높은 층에 있는 교실이 여유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유교실이 어느 교실들과 인접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을 때, 여유교실 옆에 특별교실이 붙어 있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⁵⁾.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여유교실은 학습 환경이 좋지 않는 교실에서 먼저 여유교실화된다. 이는 점이 명확해지는데, 특히 교실 앞 복도 형식과 교실동의 방위 및 교사내의 위치에 따라 여유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여유교실 발생 현황 및 활용에의 요구 분석

1. 여유교실 발생 현황

가. 여유교실 발생 유무

여유교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표 Ⅲ-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약 40% 정도의 국민학교에 여유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1995년 9월 현재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만 응답한 것이므로 과거에 여유교실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 사례를 갖고 있는 학교를 고려하면 여유교실의 발생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집단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군·읍·면 지역보다는 도시권에서 여유교실 발생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규모별로 살펴 본 결과, 학급 규모가 적을수록 발생하는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0.5% 수준에서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 주었다. 즉, 12학급 이하인 학교에서의 발생률은 52.0%였고 24학급 이하와 36학급 이하인 학교는 41.1%, 48학급 이하인 학교에서는 27.9%로 나타나 학급 규모가 적을수록 여유교실 발생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여유교실의 발생 유무

(단위 : 교, %)

구 분	전 체	대 도시	중·소 도시	군·읍면
있 다	126 (39.7)	28 (45.2)	45 (45.9)	53 (33.6)
없 다	191 (60.3)	34 (54.8)	53 (54.1)	104 (66.2)
전 체	317 (100.0)	62 (100.0)	98 (100.0)	157 (100.0)

〈표 III-2〉 여유교실의 발생 유무(학급규모별)

(단위 : 교, %)

구분	전 체	12학급 이하	24학급 이하	36학급 이하	48학급 이하	49학급 이하
있다	126 (39.7)	39 (52.0)	51 (41.1)	24 (41.1)	12 (27.9)	-
없다	191 (60.3)	36 (48.0)	73 (58.9)	39 (61.9)	31 (72.1)	12 (100.0)
전체	317 (100.0)	75 (100.0)	124 (100.0)	63 (100.0)	43 (100.0)	12 (100.0)

p<0.005

나. 여유교실의 발생수

여유교실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의 과반수 이상이(56.5%) 1~3실 정도 보유하고 있었고, 4~6실에 응답한 학교도 29.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군 읍 면 지역보

다는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수가 더욱 많았다.

다. 여유교실 결정 요인

여유교실의 처음 발생은 학생수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교실을 활용하지 않고 비어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통풍이나 채광과 같은 자연적인 학습 조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여유교실로 남겨 두게 되거나, 교무실이나 도서실 등의 다른 학습 시설과의 통행이 불편한 교실이 먼저 여유교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 본조사 결과에서는 '통풍과 채광 등의 자연적인 환경 조건'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학습 시설과의 통행 불편 조건', '주변의 소음'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라. 인접 교실과의 관계

여유교실이 생겼을 때, 인접하고 있는 다른 교실과의 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에 여유교실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교실을 미리 예측하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건물 층의 맨끝이거나 계단, 화장실 옆에 위치하고 있는 교실이 먼저 여유교실이 되는 경향이 높고 좌우측이 모두 보통교실인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조사 결과에서는 '건물층의 맨끝이거나 계단 혹은 화장실 옆'이었다는 데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2.4%), 그 다음은 '좌우측이 보통교실이었다'(26.6%), '한쪽이 보통교실이었다'(2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상급 기관에 건의 유무

여유교실이 생겼을 때, 학교자체에서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신중하게 논의하거나 상급 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71.8%) 신중하게 논의하거나 상급 기관에 보고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로써 여유교실의 발생에 대하여 학교현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요구가 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바. 여유교실의 전용시, 보수 혹은 증개축 실시 정도 및 실시 요구도

여유교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였을 때, 보수하거나 증 개축한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과반수 정도(50.7%)가 '있는 그대로 활용하였다'는 데 응답하였다. '기존의 교사는 그대로 두고 교실의 내부 수리만 수행'(33.5%)하거나 '교실의 내부 수리와 기존 교실간 벽철거'(13.8%) 또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수 응답 사례이긴 하지만 '기존 교사를 전면 개축'한 사례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는 여유교실의 발생시 기존교사를 증 개축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기존의 교사를 증 개축하고자 하는 요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거의 모든 학교(90.5%)에서 증 개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사. 증·개축시 요구되는 지원책

기존 교사를 증·개축하고자 할 때 필요한 지원책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교예산 내에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에 과반수 정도(48.2%)가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기존 교사의 활용도 및 활용을 위한 요구 자료 확보'(25.2%), '증 개축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18.2)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기존 교사의 노후도를 포함한 관리 자료 확보'에도 소수(6.2%) 응답이 있었다.

아. 여유교실 활용 용도

여유교실을 향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기를 바라는가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응답 학교가(65.5%)가 과학, 음악, 미술, 기술 등의 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로 활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도서실이나 학습 자료실, 시청

각실, 여학실습실 등과 같은 공통학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20.6%의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제시되었다. 그밖에 다목적용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6.3%), 보건 위생 및 편의시설(3.1%), 회의실, 집회실, 급식실 등의 공통지원시설(2.4%)로 활용하고자 하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IV. 일본의 여유교실 발생 현황 및 활용 사례 분석

1. 여유교실 발생 현황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생 감소 경향이 두드러져 여유교실이 증가해 오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동경 등의 대도시 중심부에서의 여유교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이에 동경에서는 여유교실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발생할 수를 추정하여 여유교실의 활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1987년 전후 杉拉區와 豊島區를 비롯한 일부 교육구에 '여유교실 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으며, 이들 검토위원회에서는 여유교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당시 杉拉區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1992년도 현재 보통교실수 969실 중 여유교실은 264실로써 전체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6년에는 329실로 증가하여 전체의 32.9%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豊島區 검토위원회에서는 1987년 현재 여유교실의 발생률은 27.3%이지만 1992년쯤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⁶⁾.

한편, 1995년 8월 일본건축학회에서 국민학교 여유교실의 실태에 관하여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K시 공립 국민학교인 경우 1994년 현재 여유교실의 발생률은 32%이고, 한 학교당 평균 7.8실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10실 이상되는 학교도 전체의 35%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⁷⁾. 이러

한 일본의 발생 비율을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약 40% 정도이므로 일본과 한국의 발생률은 30~40%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유교실 활용 유형 및 사례 분석

가. 여유교실의 활용 유형

일본의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전통적인 시각은 학생수의 추이에 대응하여 수요 공급이란 차원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여유교실의 발생을 계기로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을 전환하여 기존 시설을 보다 현대화하는 한편 새로운 교육내용 및 방법에 부응하고 보다 질 높은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시설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본 시각하에 여유교실 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유교실이 발생하여 전용한 사례를 보면, 특별교실로 전용한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관리실로 전용한 경우가 24.3%, 공통학습실로 전용한 경우가 17.0%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특별교실의 경우 특별활동을 위한 것으로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⁸⁾.

여유교실은 그 자체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벽면 이동이나 철거, 바닥재 등의 내부 수리와 같은 개조 공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개수를 실시한 사례로 약 31% 정도이다. 일본의 시정촌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학교의 전용을 위한 계획을 지원 검토하고 있는데 1994년 현재 약 40%에 해당하는 학교의 개수 사업을 책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교실로의 전용이 7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공통학습실 60.0%, 관리 및 기타 용도실이 46.7%, 생활관련실이 23.3%의 순으로 계획되고 있다⁹⁾.

나. 여유교실 개수 실천 사례

여기에 제시되는 사례들은 일본에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크게 학교 전체의 발전 계획 측면에서 이루어진 유형과 개별적으로 전용한 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는 여유교실의 발생을 계기로 학교 전체 계획 차원에서 교사 전체 배치나 교실의 공간을 대폭적으로 변경하고 여유교실 다수를 전용하기 위하여 개수한 사례들이 해당되고,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학습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내장이나 건축 설비면에서 부분적으로 개수한 사례들이 해당된다.

1) 학교전체 발전 계획 측면에서 개수한 유형

가) 사례 1 : 台東區立 富士 국민학교

이 학교는 18학급에 학생 규모는 670여명 정도이다. 1971년도에 개교하여 15년 정도 경과된 학교라 개축할만한 시기는 되지 않았으나 다목적 공간의 설치라는 기본 목표와 관련하여 학교 전체의 개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개교 당시 보통교실 27교, 특별교실 9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학급수가 18학급으로 됨에 따라 상당한 여유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층 가정교실과 2층의 이과교실을 다목적 공간으로 전용하였고 가정교실과 3층의 이과교실은 이전의 모퉁이에 떨어져 있던 2개 보통교실 사이의 벽을 허물어 새롭게 만들었다. 다목적 공간은 그전의 보통교실 2개분을 전용하는 형으로 만들어 3군데에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수 작업을 검토하는 체제에는 교육구의 교육위원회와 영선과에서 기획을 행하고 학교에 기본 취지를 설명한 후, 교육위원회와 학교, 영선과, 설계사무소에서 함께 기본계획을 결정한 한편, 학교측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개수를 행하였다.

나) 사례 2 : 福光町立 福光南部 국민학교

이 학교는 12학급에 356명이 재학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서, 이전에 부근에 있는 12개 소규

모 학교를 통 폐합할 때 통 폐합된 학교이며 열린교육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유명한 학교이다. 여유교실의 발생을 계기로 학교 전체 계획 차원에서 1985년도에 대규모 개수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개수상 나타난 주된 특징으로는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 복층에 다목적 교실을 별도로 증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교실들간의 교체를 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개수만을 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개수시에는 난방설비의 증설, 전체 카페트 교체, 내벽과 천정의 수리, 세면대와 화장실의 개수, 천정 부근의 흡음재 부착, 다목적 공간용 가구 설비가 이루어졌다.

다) 사례 3 : 愛知縣 大府市立 共長 國民학교

이 학교는 1987년도에 학급수 21개, 아동수 775명의 규모였던 학교이지만 1978년도에는 학급수 35학급에 1,407명이 재학한 과대규모의 학교였다. 1986년도에 분리교가 만들어졌고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여유교실이 발생하여 학교전체 계획 차원에서 개수를 행하였다. 학교건물이 1960년대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하여 전용 개수시에 옥상 방수, 외벽 보수, 내장 개수가 동시에 행하여졌다.

개수 계획에서는 각학년 전용의 다목적 공간을 배치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관리실로의 전용과, 보건실의 위치 변경 등이 행하여졌다. 또한 승강구를 적절한 위치에 새로이 만들었는데 대신 원래 있던 승강구는 각 학년이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판단되어 식당으로 전용하였다. 한편 새로이 증축한 내용을 보면, 다목적 공간을 신설하고 특별교실 앞에 전시코너로서의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였다.

2) 개별 전용 목적에 의하여 개수한 유형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전용하고자 한 목적에 따라 대체로 가) 학습 공간으로의 활용, 나) 생활 공간으로의 활용, 다) 관리 공간으로의 활용, 라) 지역 개방으로의 활용인 네가지 유형으로 다시 구분된다.

가) 제1유형 : 학습 공간으로 활용

(1)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

東京都 保谷市立 中原國民학교의 경우가 주목되는데 이 학교는 14학급에 452명의 학생 규모를 갖고 있었다.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6년에 개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교실 배치가 병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학년마다 1교실분의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교사 끝 부분의 교실을 종합하여 대교실로 설계, 학년 집회 등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수되었다. 4교실의 개수 방법으로는, 각 교실의 경계벽을 철거하여 하나로 만들고, 끝 부분에 스테이지를 설치하고, 중간에는 움직이는 벽을 설치하고 있다. 내장에 있어서는 바닥을 P타일에서 나무벽돌로 교체하고 벽은 도장을 새로이 하고, 사시를 교체하였으며, 천정은 석고 보드를 유공 석고 보드로 전면 개수하였다.

(2) 특별교실로 확충한 사례

埼玉縣에 소재하는 越谷市立 아鳥國民학교는 특별교실 중에서도 이과교실을 확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존 교사 1층에 있던 사무실, 교장실, 방송실을 보다 적절한 증축부로 이동시키고, 그 부분을 이과교실로서 새로이 확충하였다. 사무실, 교장실, 방송실을 구분하고 있던 벽은 구조적인 벽이었기 때문에 개수할 무렵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면서 부분적 보강을 행하고 나서 이들 벽이 철거되었다. 벽이 철거됨으로써 1교실 반의 크기를 갖는 이과교실과 반교실분의 준비실이 새로이 생겨났다.

(3) 도서실로 확충한 사례

도서실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에 배치된 형태로의 도서실로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학습 자료와 정보센터가 되도록 재배치한다는 관점으로 계획하였다는 점이다. 東京都 杉拉區立 高井戶 第三 國民학교는 복층의 교사 끝부분에 있던 종래의 공작실을 인접한 교실과의 경계벽을 철거하여 커다란 도서실로 확충한 좋은 사례이다. 이 학교는 20학급에 711명의 학생 규모로 1986년도에 도서실로 개수

하였다. 도서실로 개수함에 있어 공간은 두 개의 보통교실과 그 복도를 포함한 공간으로 마련하였는데 한편에서는 전학년이 사용 가능한 도서를 배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전, 잡지, 연감류의 도서를 배치하여 고학년이 조사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나) 제2유형 : 생활 공간으로의 활용

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유형에는 식당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교사와 학생들의 휴게 및 상담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편적이다. 식당으로 개수하여 활용한 사례는 東京都 아馬區立 關町北 국민학교가 대표적이다. 이 학교는 18학급에 587명의 학생 규모를 갖고 있으며, 1982도에 개수를 실시하였다. 개수는 교실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채 두 교실분을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의 2개 식당을 만들었다.

다) 제3유형 : 관리 공간으로의 활용

東京都 아村町立 富士見 국민학교는 관리공간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학교이다. 이 학교는 23학급에 825명의 학생이 다니는데 여유교실 발생과 더불어 보통교실을 넓게 하고, 관리용실 즉 직원실, 교장실, 방송실, 사무실, 보건실, 인쇄실 등의 배치를 재검토하여 개수 변경하였다. 여기서는 직원실로 전용하여 개수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내에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사개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건검토와 요구 수렴을 거쳐 교육위원회와 설계사무소와의 협의를 거쳤다. 개수위원회는 교감, 각 학년 및 교과 대표자 1명씩으로 구성되었는데 가능한 학년과 교과별 요구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한 점이 부각되었다.

직원실로 전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당초 직원실은 서쪽 끝에 있어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의 중앙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공사의 주된 내용은 바닥, 벽의 철거, 기둥의 보강, 천정 교체, 조명기구 교체, 교사용 수납공간과 세면대 설치 등이었다.

라) 제4유형 : 지역 개방 공간으로의 활용

神奈川縣의 橫아 市立 別所 국민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 이 학교는 22학급의 830명의 재학생 규모를 갖고 있는데 개교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986년도에 여유교실 2개분을 전용하여 역사자료실로 만들었다. 향토관은 교사 4층 동측에 위치하고, 쇼와 시대 초기 민가(民家)의 모습을 재현한 '민가실'과 농기구와 향토 문서등을 전시하는 '역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상에서 기술한 일본의 여유교실 활용 사례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유교실의 발생을 계기로 학교 시설 전체의 구조 개편과 함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점이다.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다목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노력이 지역별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다목적 공간을 확보할 때에나 특정한 목적용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도 학교 전체에서 학년 및 교과별로 가장 용이하게 활용하기 쉬운 장소를 선정하여 배치하였으며, 보통교실간의 벽을 과감히 철거함으로써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여유교실의 전용과 관련하여 증 개축 및 개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선 각 교육구의 교육위원회가 개수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측을 설득하는 경향이 있음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앙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교육위원회와 학교측의 대표자, 설계사무소와의 긴밀한 연계체제속에서 개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단시간내에 개수에 관한 계획과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본다.

넷째, 문부성 차원에서 여유교실의 전용을 위한 국고보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여유교

실의 활용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학교시설을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정책을 조기에 실현시킴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여유교실을 개별적으로 전용한 사례를 보면, 학습 공간으로 활용한 유형이 대부분으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학습 공간의 확보 방안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밖에도 생활 공간이나 관리 공간, 지역에 개방한 사례도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강구함이 요구된다.

여섯째,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여유교실로 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여유교실의 발생시 어느 교실을 여유교실로 정할 것이냐에 그 위치 및 환경적 조건을 사전에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전체 교사 배치를 교육적 요구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된다.

V. 여유교실 활용의 기본 방향

여유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학교단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지만,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지침의 성격을 갖는 기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전체 발전 측면과 학습 공간의 확충 및 재편성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학교 전체 발전적인 측면

첫째, 여유교실의 활용 계획은 기본적으로 교수 학습체제의 변화 등에 수반하여 학교시설이 교육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와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불충분했던 학교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는 과제 모두를 조화롭게 해결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수립하도록 한다.

둘째, 여유교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활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분적인 보수에 그치지 말고 학교 발전 계획하에서 증 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분적인 개수라고 하여도 학교 전체의 구조 및 배치까지 세밀히 검토하여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여유교실을 전용하고자 계획을 세울시에는 교육청과 학교, 설계 사무소와의 연계적 협조하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될 시에는 다음의 6단계를 따르도록 한다. 즉, 제1단계는 예비조사로 이 단계에서는 벽의 철거가 학교 건물 구조상 가능한가 등에서부터 자체 진단하는 단계이다. 제2단계는 여유교실수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여유교실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항구적인 것인지를 그 성격을 확인한다. 제3단계는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는 단계로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교육적으로 어떠한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가를 파악한다. 제4단계는 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학교 전체 구성 및 실 배치를 확인하고 시설들간의 기능성을 검토한다. 제5단계는 계획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어디를 어떻게 개수할 것인지를 개수 내용과 범위 및 시기 등을 결정한다. 제6단계에서는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계획안에 관한 비용, 실현 가능성, 효과 등에 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2. 학습 공간의 확충 및 재편성면

첫째, 학급간, 학년간 협력 학습 활동이나 개별학습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전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각기 세분화된 교과목을 통하여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는 같은 계열내의 교과목들을 통합하거나 인접 계열 분야의 교과목을 통합하여 가르쳐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고, 이와 함께 복수 학급이나 복수 학년으로 구성된 협력 학습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 공간의 확보는 더욱 필요해질 전망이다.

둘째, 도서 공간과 시청각 학습 공간을 확대하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배치한다. 가능하면

도서실과 시청각실을 통합하여 '교육자료센터'로 재구조화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대부분의 학교는 도서실에는 인쇄매체를 제공하고, 시청각실에서는 시청각자료를 포함한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식으로 이분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정보매체가 컴퓨터기구나 전자기기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보급되는 현시점에서는 도서실과 시청각실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셋째, 교과별로 실수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의 성격에 맞게 각 특별교실군의 상호 관계를 유념하면서 특별교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한다. 여유교실이 발생하면 부족했던 특별교실로 전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강할 것인데 이때에는 특별교실군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공간을 재편성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교사의 상담, 교재 연구 및 제작, 휴게 공간과 같은 교직원들을 위한 제반 시설의 충실을 도모한다. 이제까지 교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교사의 연구와 생활, 휴식을 복합적으로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충하도록 유도한다.

다섯째, 식당이나 휴게실과 같은 생활 공간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 지도가 쉽고 급식 지도가 용이하며 배선 경로를 짧게 하도록 유도한다.

여섯째, 지역사람들의 문화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회의실, 개방도서실, 지역문화센터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배치면에서는 출입이 용이한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VI. 결 론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여유교실 문제는 아직까지 과대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보통 교실이 부족한 실정에서 문제 인식도가 다른 과

제보다 낮을 수 있으나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차원에서 보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높은 과제이다. 여유교실의 발생을 계기로 새롭게 요구되는 제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시도할 수 있게 유도함이 중요하다.

일본은 1980년 중반 이후 교육구 단위에서 여유교실 조사 위원회를 만들어 여유교실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선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점으로는 여유교실을 계기로 학교 시설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인데 구조면에서나 배치면에서의 검토를 토대로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양쪽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유교실이 발생하는 위치나 다른 교실들간의 위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여유교실의 활용 방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학년별 전용 혹은 학년 전체의 다목적 공간이 필수 요건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문부성 차원에서 국고 보조제도를 통하여 지원해 준 선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크다.

우리나라는 이미 여유교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도 여유교실에 관한 개념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여유교실에 관한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여유교실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함이 요구되는 바이며, 본 연구에서 정리하여 보고한 일본의 개수 및 개축 사례를 본보기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여유교실을 활용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유교실을 활용하고자 계획을 세울시에는 교육청과 학교, 설계 사무소와의 연계적 협조체제가 만들어짐이 중요하고, 부분적인 개수라고 하여도 학교 전체의 구조 및 배치까지 세밀히 검토하여 활용함이 효과적이다.

- 1) 日本文教施設協會編, 1988
- 2) 東京都杉並區教育委員會 小 中學校施設活用檢討委員會, 1992, pp.13~27
- 3) 加藤幸次 松田早苗 編著, 1987
- 4) 日本文教施設協會編, 1988
- 5) 柳浩燮, 1993, pp.79~82
- 6) School Amenity, 1992年 7, 8月號
- 7) 牧敦司外4人, 1995, pp.359~360
- 8) 牧敦司外4人, 1995, p.360, 일본의 교과교실은 대개 특별교실과 공동학습실, 생활관련실, 관리실, 외부관련실 등으로 구분된다. 특별교실에는 이과실, 음악실, 특별활동을 위한 실, 생활과, 도서실, 도예실, 컴퓨터실, 시청각실, 가정과실이 포함되고 공동학습실에는 자료실, 다목적실, 오픈 룸, 전시실, 학습실, 산수실, 박물관이 포함되며, 생활관련실에는 아동회의실, 상담실, 집회실, 급식실, 그룹실, 교류교실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관리실에는 교재실, 창고, 연수실, 강의실, 인쇄실, 직원실이 포함되며, 외부관련실에는 학부모 회의실 등이 포함된다.
- 9) 屋敷和佳, 1988, pp.38-39

참 고 문 헌

1. 한국교육개발원(1993). 『한국의 교육지표』.
2. 박 영숙(1994). “교수 학습 방법 개선과 학교시설 발전 과제”. 『교육신보』. 5월 30일(제 820호). p.4.
3. ———.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따른 학교시설의 대응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연

- 구』. 6월호. 제14권 제6호. pp.42-45.
4. ———. “학교 도서실의 기능 확대 및 구조 개선”. 『교육관리기 술』. 7월호. pp.108-114.
5. 屋敷和佳(1988). “兒童 生徒の減少に伴う學校施設の質的向上に關する研究: 市町村教育委員會調査より”. 東京:國立教育研究所. pp.38-39.
6. 東京杉並區教育委員會 杉並區 小 中學校施設活用檢討委員會(1992). “東京杉 並區に見る兒童生徒減少期の餘裕教室の活用方法: ‘開かれた學校をめざして’ 報告書より”. 『School Amenity』. 第7卷 第7號. 通卷71號. pp.13-27.
7. 東京 豊島區空き教室對策檢討委員會(1992). “教育新時代に對應する東京 豊島 區にみる空き教室對策報告まとまる”. 『School Amenity』. 第7卷 第8號. 通卷 72號. pp.13-30.
8. 柳浩燮(1993). 『兒童の評價からみた小學校の學習環境の考察:教室 多目的スペースの面積密度』. 東京都立大學 博士學位論文.
9. 加藤幸次 松田早苗 編著(1987). 『空き教室の活用』. 東京:黎明書房.
10. 日本文教施設協會編(1988). 『子供たちを育てる學校施設:學校施設のリニューアル: 計劃と事例』. 東京:第一法規.
11. 牧 敦司外4人(1995). “小學校における餘裕教室の活用實態に關する考察 : K市 公立小學校を對象として”.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懇概集. 8月. pp.359-360.